

# 2022년 수원화성 총보행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2022 June 6

햇살좋은 봄날인 4월 16일, 좋은벗들과 좋은이웃이 함께 수원화성 역사기행을 하였습니다.  
수원화성의 역사에 더하여 깊이 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 좋은벗들 가족이 되어주세요

### ♥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 좋은벗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세상에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세요.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롭고 갈등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 ♥ 후원회비는 이렇게 내세요

#### ●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S를 이용하면 자동이체처럼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A 신청은 좋은벗들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후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뒷면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좋은벗들에 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세요.

#### ●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사)좋은벗들]

국민은행 086-25-0021-251      농      협 100080-51-038056

#### ● 후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TEL 02-587-8996 / FAX 02-581-4077(좋은벗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기다립니다.

연말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듯.

동래 좋은벗들의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벗들

(사) 좋은벗들은 다툼이 없는 삶을,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좋은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생명이 한 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기획 1 ━━━━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 04 광명지회 좋은벗들 봉사 회의를 소개합니다 | [이정원](#)



## 좋은이웃되기 ━━━━ 가정방문

- 13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 [김병선](#)  
15 2년만의 봄나들이 | [정순금](#)  
16 어린이날의 산타클로스 | [이수정](#)  
17 활짝 웃으니 좋다 | [최은지](#)  
18 마음이 아팠습니다 | [김미정](#)  
20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 [주선희](#)  
21 생크림이 녹을까봐 | [신광섭](#)  
22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이 좋아 | [김해원](#)



## 산모/영유아 지원

- 23 첫째 출산을 축하드려요 | [최성선](#)



- 24 준영이와 행복하세요 | 최옥분  
25 다복한 가정, 첫째 첫돌 | 정정숙

**나들이**

- 26 수원화성 행궁 함께 돌아보는 역사기행 | 이서후  
29 수원화성 소개 | 이승용



**기획 2** ————— **역사기행**

- 33 경주지회 역사기행 | 송태교



**기획 3** ————— **통일 정진**

- 39 평화통일은 우리들의 꿈 | 김천호



“

기획 1

##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광명지회는 광명, 시흥, 안산 세 지역이 모인 지회로,  
현재 좋은벗들 고정 봉사자 총 12명이 함께 하고 있  
습니다. 시흥에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월례회의를  
2021년 하반기 광명지회로 합쳐진 후 올해 1월부터  
세 지역의 봉사자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 광명지회 좋은벗들

## 봉사 회의를 소개합니다

이정원 시흥 좋은벗들

**광**명지회는 광명, 시흥, 안산 세 지역이 모인 지회로, 현재 좋은벗들 고정 봉사자 총12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월례회의를 2021년 하반기 광명지회로 합쳐진 후 올해 1월부터 세 지역의 봉사자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그런 만큼 다같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6~8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는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이 금지되니 전화로라도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통화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 활동을 이어갈 자리가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의는 이제, 봉사자들이 각자 좋은벗들과 소통하고 활동하며 일어났던 다양한 상황과 마음을 공유하며 공감도 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소통이 나만 어렵나? 나만 화가 나나? 도움이 되기는 할까?’와 같은 다양한 의문들이 진솔하게 공유되면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에 위로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 내는 서로를 보며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 그런 가운데 여러 행사가 내려오면 그에 맞는 의논도 하고, 끝난 후에는 평가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회의는 고민과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봉사자들이 각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화합되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화해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의를 통해 명절 선물이 합의가 잘 되어서, 세 지역의 봉사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편안하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새 장난감이 있다는 소식이 회의에서 공유됨으로써 광명에서 시흥까지 택배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봉사자들의 배려로, 남아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시흥의 한 어려운 가정에 장난감이 잘 전달됨을 보며 한 지회로 통합되어 함께 하니 돋고자 하는 마음이 배가 됨을 느꼈습니다.

회의과정은 특별할 것 없이 누구나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으로 실행중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례회의 프로그램/회의시간(1시간 소요)〉

- 명심문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
- 첫 마음 나누기
- 매달 전화 + 방문한 후기 나누기(행사 직후에는 행사와 관련된 후기와 평가 나누기)
- 공지사항 / 질문, 제안
- 마무리 마음 나누기

## 좋은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벗들 활동의 핵심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만남이 서로 어색하고, 어색하다보니 마음이 잘 나지 않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통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가끔은 눈물 나는 탈북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프거나 힘들 때는 소소한 도움을 나누고, 기쁠 때는 함께 웃다보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고민들이 해결되었음을 봅니다. 화가 나서 하기 싫다던 분도,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던 분도 이제는 서로 정이 들어 좋은 벗이 되어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한 번 더 전화기를 들고 걸음을 움직인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벗들’을 조금씩 알려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 백일, 돌과 분유를 지원하는 ‘영유아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다른 좋은 벗들을 소개받아 인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JTS 안산다문화센터 소개로 생활이 어려운 좋은 벗과 고령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광명지회 활동가 1차 회의

봉사자 중 한 분이 JTS 안산다문화센터에서 꾸준히 차량봉사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고려인들의 어려운 상황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입국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어 회의가 보다 진중하고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지회로 통합된 후 설 명절을 한 번 치른 것 외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흘러가보자는 마음이 큩니다. 세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해온 시간이 있다 보니 서로 다르게 흘러온 상황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기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잘 안 나서 어렵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함께 봉사하고 있으므로 일어나는 마음인 만큼 소중합니다. 각자의 바쁜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돋고자 하는 봉사자들 덕분에, 이 활동이 가능함을 보며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벗 한분이 들려주시는 북한에 편 살구나무꽃 이야기에 “통일되면 거기 꼭 테려가 주세요”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벗들과의 만남은 인연 따라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겠지만, 언젠가 다 함께 통일된 북으로 가는 날을 떠올리면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이 봉사를 합니다.

### 광명지회 첫 회의 나누기\_좋은벗들 활동하며 일어난 마음

- 초기에, 전화를 잘 안 받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 그것도 이해가 되고, 사고방식도 나와는 좀 다르구나 알게 됐습니다. 분유 지원하며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길래, 좋은벗의 생활 상황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며 감정이 나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풀리고, 통화하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진짜 벗이 됐습니다. 통

일축전 때 참여한 좋은벗과는 참여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좋은벗들’의 의미를 많이 알리고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된 듯합니다.

- 계속 연락담당들 보조로 함께 다니다가 최근에 책임지고 한 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느낌이었는데, 아이 먹이는 분유는 비싼 분유를 사는 걸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와 다른을 보게 되고, 그렇게 분별하는 나를 보게 되고, 젊은 엄마라 세대차이가 나는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를 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습니다.
-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면 굉장히 고마워들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식사 대접 한다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보면 참 인간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내면에는 큰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 작



광명지회 활동가 4차 회의

은 거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선물 전달할 때 일하는 분들은 만나기가 어려워서 문 앞에 두고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 외에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 솔직히 좋은 벗에 대한 정이나 사랑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벗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각자 살아온 환경과 체제가 많이 달라서 놀라운 부분이 많기도 하고, 이곳저곳 발을 걸쳐서 얻을 수 있는 걸 누리려는 욕심을 볼 때는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친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다보니 전화할 때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해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 저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활동 초반에 좋은벗들이 약속을 잊고는 집이 아닌 외부에 계신 경우가 종종 있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계속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들이 초기 정착하면서 복지관, 센터, 담당경찰, 교회 등등 여기 저기 연락 오는 곳도 많고, 정신없이 살고계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건 무지 때문이라고 배웠는데, 역시 꾸준한 소통이 최고임을 느꼈습니다. 활동하며 좋았던 점도 소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새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분들의 눈을 보면, 이렇게 들어드릴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 저는 이제 막 시작해서 두 번째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참여해보니 기존에 이 봉사를 하던 분들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방문하고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후기도 챙겨서 올려야 하는 과정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일 텐데,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들이 있었겠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처음엔 ‘내가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이웃되기’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이 땅이 많이 낯선 좋은벗들이, 현지인 한 명 정도 알아두면 좋겠다는 정도로 임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은이웃이 된 것 같습니다. 

“

## 좋은이웃되기

- 가정방문
- 산모/영유아 지원
- 나들이

정착초기에는 첫 살림살이를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시설들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돋고자 출산 준비 물과 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일과 돌에도 축 하하며 좋은이웃의 가정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김병선 광명 좋은벗들

- 지원일 : 2022년 4월 9일
- 지원대상 : 이안○○님

안산다문화센터에  
서는 매주 일요일에 다  
문화가족들을 대상으  
로 무료진료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고려인 이  
○○라님도 지난 2월에  
심한 복통과 고열로 센  
터에 내원하셨는데, 당  
시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비 200여  
만원이 없어서 계속 진통제만 먹고 직장에 일을 다니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  
습니다.

이안○○님은 팔을 다쳐 일을 못하는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며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급히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만나 시화 센트럴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이미 맹장이 터져서 대장괴사가 진행중이라고 바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장이 괴사된 부분도 잘라내고 수술은 잘 되었고, 5일 후 퇴원하셨습니다. 총 병원비 366만원에 183만원은 아래저래 주변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센트럴병원 이사장님이 130만원을 면해주시고, 좋은벗들에서 5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수술비가 정확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감사한 마음입니다.

# 2년만의 봄나들이

정순금 노원 좋은벗들

- 언제 : 2022년 4월 17일
- 어디로 : 창경궁
- 대상 : 2가정(지○네, 고○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하지 못했고 가족끼리도 못 다녔다고 해서, 2년만에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벚꽃 시기는 못 맞췄지만, 창경궁의 봄은 신록으로 충분히 예뻤습니다.

엄마들은 창경궁에 가보고 싶어 했지만, 놀이시설도 동물도 없어서 애들이 지루해 할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연못을 좋아하고 넓은 곳 만으로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일 나가느라 집안도 애들도 걱정이라고 대화를 나누던 엄마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삶의 피로에 지쳐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휴식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 어린이날의 산타클로스

|  
가 정  
방 문

이수정 동래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1일

• 방문대상 : 6가정 9어린이

**대**부분 낮에는 안 계시니 밤시간을 이용해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전달 했습니다.

가을 통일축전에서 얼굴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김장김치 엄청 맛 있었는데 같이 만들지 못해서 아쉬웠던 마음도 전하면서, 올 가을에는 반가운 얼굴 꼭 뵙자고 인사하였습니다.

선물 전달하는데 아이가 잔다며 깨울까요? 물으셔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니 다음날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잘 쓰이게 되어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 활짝 웃어주니 좋다

최은지 해운대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3일~4일
- 방문대상 : 15가정 21어린이
- 봉사자 : 최은지, 김무진

**대**부분 가정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좋아한다고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고, 대면으로 직접 방문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활짝 웃어주어서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봉사하여 더 좋았습니다.



# 마음이 아팠습니다

|  
가 정  
방 문

김미정 노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3일
- 방문대상 : 2어린이
- 봉사자 : 정순금

어린이날이라 래고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는데, 여름 티셔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쩍 자랐는데, 엄마들이 바빠서 사러 갈 시간이 안되나 봅니다.

지성이 학원에 갔고, 엄마들은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 고유 엄마를 잠깐 만나고, 고유만 데리고 아울렛에 갔습니다. 고유가 참 많이 의젓하게 컸네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잘 고르고 생각 표현도 잘하고, 지성이 옷 고를 때 도 차분하게 잘 기다려주고 차에 타고 내릴 때도 안전하게 해주어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와 똑같이, 물건 고르면서 비싸다고 걱정을 먼저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유 엄마랑 옷을 사러 갔을 때, 부담없이 솔직하게 맘에 드는 옷을 고르지 못하고 가격표 먼저 보는 게 늘 안스러웠는데, 고유도 옷을 고를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선물을 전하니, 지성이 엄마는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자기도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내 마음도 참 좋고 고마웠습니다.



#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주선희 수영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4일
- 방문대상 : 7어린이, 어르신 2분
- 봉사자 : 김정숙, 주선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 방문이 많았지만,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얼굴을 뵙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와 반가운 이야기, 그리고 열심히 사는 이야기 등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부작용과 지병이 겹쳐서 남편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부인과 이웃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가 9살 아이마저 언어장애로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치료센터나 아이 학교 문제를 제기해도 당사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생크림이 녹을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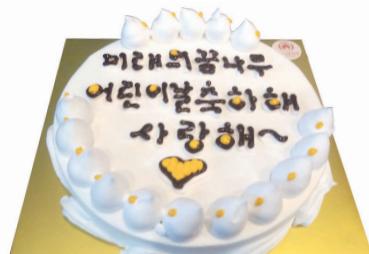
신광섭 구미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4일~7일
- 방문대상 : 16가정
- 봉사자 : 신광섭 외 10명

어린이날 선물로 준비한 생크림 케이크를 차에 오래 두면 안되어 마음이 조금 했습니다. 생크림이 녹을까봐 잘 켜지 않는 차량 에어컨을 뻥뻥하게 틀고 이동했습니다.

직접 뺏고 드린 케이크를 좋아하시며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셨습니다.

급하게 케이크만 전달하고 나오려 했는데 수박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눔이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구나, 나눔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이 좋아

김해원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6일

• 방문대상 : 2가정 4어린이

오늘은 유치원과 학교에 안가는 날이라, 미리 약속을 하고 풍동 이마트에서 만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망원경을, 민아는 색칠하는 그림책을 골랐습니다. 민아는 현주가 좋아하는 그린색 인형을, 민준이는 대길이 선물로 망원경을 골라 대길이네 집으로 같이 가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색칠도 하고 식탁에 모여 노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아도 어릴 때 보고는 못 만났다고 민준이가 얘기해 주어서 아이들이 더 자주 만나서 함께 놀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을 나오는데, 집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

|

산 모

영유아

지 원

# 첫째 출산을 축하드려요

최성선 구미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2월 19일

• 방문대상 : 김○희님댁

김○희님의 첫째 딸이 태어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댁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선물을 전해드리며 축하인사 나눴습니다. 아기가 순해서 모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단란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래봅니다



# 준영이와 행복하세요

산 모  
영유아  
지 원

최옥분 부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4월 22일
- 방문대상 : 황○○님댁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아기와 함께 새터민 쉼터에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의지하며 살고 싶어 얘기아빠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후 헤어지게 된 이야기, 북한에 남아계신 어머니와 남동생이 걱정되어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아 북한에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급자로 생활하는데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 착하고 마음씀씀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뽀얗게 젖살이 오른 준영이와 난방비 아끼며 알뜰하게 살아가는 준영이 엄마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씩씩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준영이 엄마를 응원합니다.



# 다복한 가정, 첫째 첫돌

정정숙 중율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15일
- 방문대상 : 문○○님댁
- 봉사자 : 유은희, 정정숙

문○○님 첫 아이 찬웅이의 첫 돌 잔치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문○○님과 남편분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다음 달 둘째 출산 예정이라 힘들어 보였지만, 잘 생기고 건강한 찬웅이를 보니 다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돌 축하와 둘째 순산 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



# 수원화성 행궁

## 함께 돌아보는 역사기행

이서후



**벗**꽃 흘날리며 초록으로 물드는 수원의 팔달  
산 아래,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 집 밖 생활은 엄  
두도 못 내었던 좋은벗들에게 오랜만의 만남의 장

이 펼쳐졌습니다. 수원화성 행궁을 돌아보는 역사기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만의 만남으로 좋은벗들과 좋은이웃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4월 16일 수원화성 박물관 정문에 모여서 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화서문과 장안문, 방화수류정까지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좋은벗들 이승용 국장님의 함께 하시며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박물관 앞에서 10시까지 모이기로 한 약속을 지켜 속속들이 모여 주셨고, 봉사자들은 오시는 분들에게 차례대로 이름표와 수신기를 나눠주고 사용법을 안내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좋은이웃분들의 열

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깊어진 봄 햇살은 조금 덥기도 했지만 반가움을 더욱 북돋아주는 듯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벗들의 좋은이웃되기 수원화성 역사기행에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사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역사 속 왕 중에 대왕이라고 부르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입니다.” 이승용 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설명으로 박물관 입장에 앞장서고 좋은이웃분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 가족이 오시기도 하셨고, 친구와 함께 오신 분도 계시며, 두 손 꼭 잡고 오신 어르신 부부도 계셨습니다.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에서 참가자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봉사자들은 수원화성 행궁 길잡이 안내책자와 물과 간식이 담긴 꾸러미를 준비하여 박물관 출구에서 미리 대기하였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께 준비한 것들을 나눠 드린 후, 재빠르게 정리하고 혹여 뒤쳐지는 분이 계신지 살피며 걸음걸이 맞춰 뒤따랐습니다.



선두에 선 이승용 국장님은 이동 중에도 이런저런 설명을 정성스럽게 해주셨지만, 참가자들은 오랜만의 만남이라 그런지 삼삼오오 짹을 지어 그동안의 밀린 이야기를 나누시느라 설명을 놓치기도 하셨습니다.

화서문에 도착하니 벚꽃들이 바람에 눈발 날리듯이 흘날려 여기저기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걸어서인지 잠시 쉬어가자 하시며 사진도 찍고, 물도 마셨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이 갑자기 봉사자의 팔을 잡으시더니, 매번 이렇게 좋은 장을 만들어주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봉사자에게도 전달하듯 흐뭇한 미소와 함께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 서로 격려하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어 서북 공심돈과 성곽길을 따라 장안문을 거쳐 방화수류정까지 행사의 마지막 도착지에 이르러 자리 잡아 앉았습니다. 좋은이웃 제일 어르신이 오늘의 역사기행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며, “만날 기회를 마련해준 좋은벗들 단체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탈북민들 사랑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시며 나누기를 마치셨습니다.

단체 기념사진과 모두 하나된 박수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하는 노랫말처럼 2022년 4월 어느 좋은 날 우리는 수원의 역사를 하나되어 함께 마주하였습니다. 더욱 더 많은 것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할 수 있을 그 날을 기원합니다. ☀

좋은 이웃 되기

# 수원화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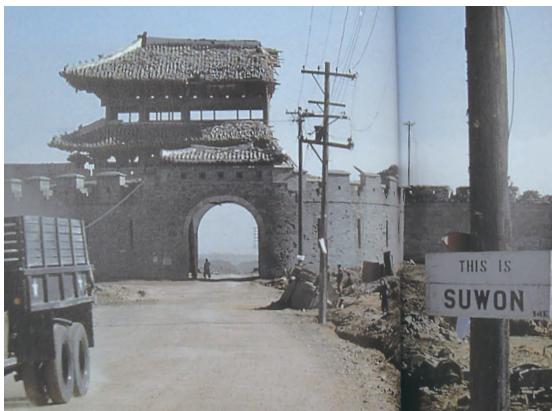
|  
나 들 이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수**원화성은 수도권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며 용건릉이라는 명당자리로 묘를 이전하고,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도시를 만든 것이 수원화성이다.

당시 30세에 불과한 실학자 정약용이 동서양의 성곽을 두루 연구하여 각각의 장점만을 골라서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 근대시기 주력무기인 활, 석궁처럼 방아쇠로 쏘는 무기인 쇠뇌, 총, 화포의 사용과 방어기능까지 두루 갖추었다.





정약용은 전체 5.7km의 성곽 공사를 구간을 나눠 책임지도록 한 실명제를 적용하였고, 사용한 건축 재료를 규격화했으며, 자재를 신고 들고 나르는 운반 설비 도구까지 제작하였다. 그런 노력 덕분으로 10년을 예상했던 공사기간을 2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완공된 지 200년가량, 튼튼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던 화성은 6.25 전쟁을 겪으며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다. 성벽과 돌담에는 지금도 총탄과 포탄의 파편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꾸준히 공사를 해 지금은 대부분의 성벽과 건물이 복원을 마쳤다.

수원화성



유네스코에서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심사가 이루어질 때, 200년이 지난 성곽이지만 다 부서지고 최근에 복원한 건물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심사과정에서 빛을 발한 것이 바로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이었다. 정조 임금은 화성을 완공한 이후 모든 공사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보고서에는 화성의 모든 건물의 설계도가 그림으로 남아있고, 최근 복원 공사는 그 설계도의 내용대로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남긴 많은 유물유적 중에서도 수원화성은 도심에 있어 접근이 쉬우면서도, 대부분의 복원을 마쳐 성곽의 기능과 건축기술, 상세한 구조를 공부하는 체험학습에 최고의 소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쉼터와 휴식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계절 늘 많은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



“

## 기획 2 역사기행

꽃보다 초록이 빛나는 이 계절에 경주지회에서는 실천활동팀 주최로 경산을 배워보는 역사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잊혀진 소국 ‘압독국’과 삼국통일의 전초기지 ‘마위지와 김유신장군 병영지’에 다녀왔습니다.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3명을 포함 18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경주지회 역사학교 꼭지 윤용희님의 진행으로 임당동고분군 · 임당토성 · 마위지/김유신병영지 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

# 경주지회 역사기행

역사  
기행

송태교 경주 좋은벗들

## 1. 임당동 고분군(사라진 고대왕국 압독국)

경산에는 임당동, 조영동, 부적리 등에 고분군이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있었던 압독국 유적입니다. 임당동 고분군은 영남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분포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 대부분이 경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분군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분들을 보며 사라진 왕국 압독국을 그려보았습니다.

압독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압독국’  
 押督國 혹은 ‘압량소’  
 國押梁小國 으로  
 등장하는 경  
 산에 위치했  
 던 신라시대



임당동 고분에서 역사학고 출발

의 지방 소국입니다. 임당유적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약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고대 경산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금동관, 금귀걸이, 은제허리띠 등 장신구와 각종 말갓춤장식, 토기 등 2만 5천여 점의 유물뿐만 아니라 인골과 동물뼈 등 압록국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2. 임당토성

4세기 초반에서 6세기까지 사용하던 토성이 남아있어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야트막한 구릉 위 토성에 올라서자 동서남북과 금호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당동고분



니다. 위치만으로도 압독국과 주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였습니다. 그늘에서 진행된 유적에 관한 퀴즈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3. 마위지와 김유신장군 병영지

마위지는 김유신이 ‘군마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봇’입니다. 병영유적지는 이곳 외에 2곳의 유적지가 거리를 두고 남아있었습니다. 김유



신은 신라가 백제 의자왕에 대야성을 비롯해 많은 지역을 잃던 위기 속에서 압독군주로 부임하였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병영지를 만들어 훈련하였고, 전투에서 한 번도 졌본 적이 없는 병사를 동원하여 난국을 해쳐나갔다고 합니다. 진행자의 흥미로운 설명에 모두 귀를 쫑긋하여 들었습니다.

#### 4. 나누기

경산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소 대구한의대 한학촌에서 나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다음에 다시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 오랜만에 도반들과의 나들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 역사 자체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실컷 풀어놓은 하루였습니다.
- 경주지역 역사학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 경산지역 다음 역사기행지로 원효대사 구도의길(탄생지, 수련지, 오도지)을 구상해봅니다.

경주지회는 대구시지역, 경산지역, 경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경주지역에서도 5월 중순에 역사기행을 합니다. 아름다운 5월에 함께하는 역사기행을 기대해 봅니다. 

한의대 한학촌



#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

N 법륜스님 행복학교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내가 행복하려면  
세상은 언제나  
좋은세상 !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수시접수



행복학교

1800-9869

## 법륜스님 온라인 행복학교

● 접 수 수시접수

● 수업방법 화, 목 오전10시/저녁 8시 중 택 1  
(주1회 수업)

● 수업과정 오리엔테이션 + 마음편 4강

● 참 가 비 1만원 (온라인 소그룹 진행)

“

기획 3

## 통일 정진

평화통일은 서로가 하나 되는 통일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화는 현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고 통일은 미래의 이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딛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 남과 북이 합쳐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고 초 일류문명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코리아는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평화통일은 우리들의 꿈

##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이야기

김천호 남울산 좋은벗들

살아오면서 누구나 인생의 목표꿈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자이  
라는 추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살면서 태어나기 전의 세상보다는 나로 인

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환경운동 낙동강하구 지킴이, 사회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인생의 목표는 희미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잊고 외면하고 살던 나의 꿈을 자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의 외교정책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게 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전쟁없는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해졌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 지는 잘 몰랐습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7년 전쟁방지를 위한 한반도 만인평화선언 및 평화대회에 참여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8년 백악관 북미평화협정 촉구 청원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의 만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주 사천왕사지 통일기도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이론적 체계 확립과 꾸준한 실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하여 통일에 관한 책을 읽고 평화재단의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정토회 통일의병이 되어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통일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화는 현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고 통일은 미래의 이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딛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 남과 북이 합쳐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고 초 일류문명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코리아는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1차적인 평화통일의 실천과제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중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매주 일요일 새벽 6시에 삼백배 통일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 평화통일 기도를 한다는 사실에 신기하기도 했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나도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매주 사천왕사지에서 평화통일기도를 해야겠다고 그 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이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천왕사지 통일기도를 시작하고 사계절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찬 바람 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여름의 따가운 햇살과 태풍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 속에서도 5년 동안 한결같이 매주 일요일 사천왕사지에서 새벽을 여는 현장팀과 온라인에서 화합과 평화통일 염원기도를 함께 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기에 우리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외롭지 않고 늘 희망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삼백배 통일정진기도로 경주 사천왕사지의 새벽을 열어 젓히는 우리들의 소원은 단 하나, 평화통일된 세상을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매주 일요일 새벽 여섯시 경주 사천왕



사지에서 통일기도의 대문을 활짝 열고 통일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반도 평화에서 동아시아 평화로, 세계 평화로, 통일 코리아, 만세! 만세! 만만세! 만만세! ☺

### 〈통일로 가는 길〉

어두운 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줄 몰랐다.

달자리 별자리를 벗삼아

통일이라는 막연하지만

절절한 목표를 향해

밤새워 우리는 없는 길을 그냥 걸었다.

먼동이 터오고 아침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알았다.

통일로 가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보이진 않지만

그 길을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 후원해 주신 좋은벗들입니다

- 2월, 3월, 4월 신규 후원입니다. (2022. 2.1~2022.4.30)

000000002438	김원진	000000002430	박순례	000000002450	문정연
000000002439	우효준	000000002440	안성환	000000002451	신정원
000000002418	김석곤	000000002441	이경희	000000002452	고유진
000000002421	김경원	000000002442	최주호	000000002453	서재원
000000002423	전미애	000000002443	장경선	000000002454	최보이
000000002424	윤충현	000000002444	김희경	000000002455	장영애
000000002425	권정아	000000002445	김태완	000000002456	유미환
000000002426	변지현	000000002446	석지원	000000002459	정토법당
000000002427	은상봉	000000002448	류지현		청년지부
000000002429	허윤숙	000000002449	장계환		

- 2월 후원입니다.

## [ 일반후원회원 ]

김금숙	곽봉준	김민정	김정임	류시성	배미령	신창연	윤여훈	이정민	정경숙	최기진	홍지예	신강희	강득록
송영규	구미경	김봉환	김종순	류제표	배상훈	심연우	윤영실	이정순	정근혜	최동호	홍진숙	고은별	강보길
정경희	구언언	김석범	김진민	문은영	백혜은	심지현	윤옥순	이지은	정인숙	최복희	황화숙	권윤정	강유진
박승호	구자걸	김석순	김학련	박경석	서석민	심홍아	윤혜숙	이참한	정용구	최상민	정기찬	김미숙	강재성
박현호	권효순	김선문	김 혁	박금옥	석은영	인도연	이경향	이창희	정점순	최수지	정재필	이경화	강태경
법륜스님	기모란	김선정	김형국	박민경	설민영	안상호	이경희	이철호	정현태	최웅선	박주하	채영운	강현기
오민정	길미숙	김성진	김형의	박병진	성광지	인재성	이경희	이향애	정혜윤	최원석	김동환	박정옥	강희석
오환석	길현자	김승희	김홍희	박봉진	손규만	오성일	이길자	이화경	조경희	최정연	문귀숙	소희주	고경옥
이지현	김경란	김영실	김희경	박상미	손대성	오재민	이덕아	임윤석	조수진	하연숙	석연화	오덕진	고관규
이학자	김경분	김영주	남연우	박상호	손영희	오정숙	이명희	임진영	조정희	하지유	오문택	이복승	고병엽
최선희	김규혁	김월금	노기선	박수일	손정숙	오정택	이상현	임혜진	조 협	한상훈	정태임	이영미	고연화
강용순	김근식	김은란	노옥재	박애란	송승원	오지인	이서현	임희진	조희옥	한영옥	김병주	이원석	고지안
강호일	김기연	김은자	노주형	박인경	송태화	용체명	이순자	장경원	주동규	한용탁	이혜림	이효산	곽도순
고광숙	김남홍	김인식	노지희	박준경	송필순	우서정	이오영	장도연	주선우	한지연	강성연	임순옥	권미향
고미숙	김대순	김재영	드림엔	박혜숙	신미란	유수스님	이유철	장성심	지민규	한혜옥	박수미	이덕기	권이슬
고정순	김 만	김재호	안양지점	박홍주	신숙경	유우인	이은민	장영주	지상금	허지연	박순천	김세일	권재영
고지선	김미경	김정숙	류석현	방서연	신주호	유재성	이재숙	전미선	진광자	현효용	손은숙	황수남	권태윤

권호기	김순영	김지은	박근영	배준식	신혜정	윤상석	이상필	임수신	정안수	최대식	현정련	서예랑	장효숙
금두희	김승환	김진권	박민식	백강순	안봉진	윤석황	이선경	임 철	정영미	최민서	호수경	송봉섭	전우성
기세환	김양지	김찬우	박민정	백단심	안선영	윤은희	이선민	장경신	정영수	최영자	홍미경	송전용	정언모
김경실	김영은	김창수	박분숙	백영일	안성환	윤인숙	이선호	장세만	정정관	최장희	황은단	신봉월	정월향
김경필	김용철	김하정	박선희	백옹대	안순희	윤태욱	이성미	장정화	정정영	최정희	황인조	심진희	정유진
김경희	김원달	김 향	박성원	서영란	인재호	윤후영	건축사사무소석원	정정희	최지원	오윤지	양기환	정정원	
김귀남	김원진	김향숙	박성준	서영홍	안정애	이갑성	이소현	장창호	정현숙	최진연	감미정	양연수	조금연
김나경	김원태	김현숙	박순옥	서주연	안정희	이경선	이연순	전귀재	조세분	최현서	강신준	오미현	최병숙
김대철	김유연	김현우	박순희	서창무	양경희	이경숙	이 영	전미애	조시현	최현숙	강희선	우현자	한대식
김리원	김은경	김현지	박승우	석선정	양혜영	이광용	이영숙	전병찬	박해광	하기완	권정아	원준경	한동필
김명희	김은수	김형숙	박영주	설정경	양희준	이근진	이영애	정구락	조영구	하선아	김경애	유옥경	한승희
김문영	김은희	김형희	박재현	성향아	여경민	이금림	이영휘	정다영	조해숙	한규매	김도영	유윤식	
김미경	김의권	김화숙	박정수	손경연	여경화	이기남	이외순	정란희	조혜정	한미경	김미영	윤재송	
김민정	김인희	김희준	박주영	손영미	여현주	이길엽	이은경	정래식	지명자	한병기	김미자	윤태순	
김민중	김재규	노경미	박진현	손영상	오명숙	이동우	이정노	정명화	지은아	한승희	김성혜	이로은	
김백수	김재민	노 란	박진희	손재신	오미옥	이두희	이 인	정미숙	지은정	한의규	김종호	이상광	
김상원	김재훈	노은하	박철웅	송기형	오병찬	이명숙	이정임	정보성	지현숙	한태숙	김첨민	이승용	
김선경	김정욱	문보빈	박태희	송민령	오세준	이명순	이종인	정신경	차영식	함정호	김창진	이시훈	
김선희	김정욱	문지영	박현님	송민석	오세칠	이미나	이진미	정선영	채수연	허미혜	김화영	이원제	
김성유	김정윤	문태운	박현숙	송지우	오진미	이미란	이판오	정성아	채희주	허영숙	문예진	이은설	
김세호	김종복	민영희	박현준	신명순	오진환	이봉자	이현주	정수희	천성필	허윤숙	박동주	이정희	
김수녀	김종희	박경숙	박흥남	신순숙	우복덕	이상건	이혜경	정순자	최경민	허은희	박윤호	이창수	
김수훈	김주옥	박경훈	박희복	신순임	유은희	이상만	이혜원	정순진	최고은	허 준	박은아	임도영	
김숙녀	김지영	박경희	배명자	신현희	유정재	이상열	임미순	정승연	최디루한	현순희	배선희	장미애	

## [ 좋은이웃되기 ]

전보명	김분주	김혜정	배미령	이방수	이필영	정지안	하연숙	강회배	김문영	김춘희	문경자	박윤정	양지연
조은서	김석순	노주형	변종임	이상한	이향애	정지윤	하재남	곽도순	김민정	김태욱	문보빈	박인환	오병찬
강미선	김선문	노혜원	서양숙	이서현	이현미	조경희	한지연	권지웅	김민정	김태희	문정희	박재범	오윤주
고정순	김선정	류시성	성혜정	이외숙	이혜경	조자익	허종보	금동숙	김선경	김현수	박경숙	박태희	유남욱
구영모	김수진	류제표	손영희	이유철	이화경	조희욱	허지연	금우희	김성얼	김한영	박명복	박현님	유두진
구자걸	김수현	박선희	송승원	이윤정	임지영	천인근	현은영	길현배	김순정	김형숙	박선경	박형준	유정재
길현자	김영숙	박순화	송태화	이정민	임진영	최경임	limehua	김경현	김승호	김현정	법성스님	배정기	윤득기
김가빈	김영자	박준경	오성일	이정순	임희경	최복희	송미해	김국환	김승환	김현주	박성원	백강순	윤여동
김경선	김운범	박현실	오정택	이정원	장수빈	최순희	권교중	김남선	김완진	김혜영	박수영	백동화	윤정호
김경원	김인식	박혜숙	용채명	이정은	장희정	최영화	구영희	김도연	김의경	노경미	박순우	설은자	윤충현
김미경	김지훈	박흥주	위라미	이지은	전혜진	최원석	강득록	김동윤	김의권	노 란	박순희	손영미	은상봉
김민범	김필선	방미영	이다혜	이창희	정성희	최현이	강문현	김명수	김재민	노희산	박영덕	송지우	이경선
김봉환	김현지	방서연	이미경	이철호	정은영	추향자	강보길	김명신	김정실	류민경	박영야	양미진	이남운

이동규 이선민 이인숙 임경란 전미애 정성호 최경민 한건우 홍경희 고현정 박은아 이미애 정원자  
 이동우 이성애 이일현 임수신 전외자 정순자 최금자 한병기 흥순연 구현오 서성희 이은우 정충호  
 이만영 이수민 이재관 임은숙 전은수 정현숙 최선미 한상윤 흥옥희 권정아 송봉섭 이정남 조순봉  
 이명우 이 영 이점순 임현식 전정숙 조남국 최양님 한승희 흥효정 김규희 신보영 이종필 최동숙  
 이민영 이원우 이종승 장경선 전혜준 조세분 최은숙 한운호 황경석 김나형 안선영 이희자 최성희  
 이봉자 이 은 이중인 장서우 정금도 조주호 최인미 한정현 황수진 문성해 양홍심 장말자 한승희  
 이상현 이은경 이지현 장시은 정래식 주혜숙 최한구 함정호 황지영 문예진 염지선 전우성 황연주  
 이서영 이 인 인미화 장지만 정문희 지명자 최현숙 허윤숙 고성임 박세미 이로은 MATSUHASHI SACHIYO

## [ 평화지킴이 ]

박순례 김선정 방미영 이미경 정희정 이정숙 김남심 김종애 박윤정 오윤주 이재관 조세분 한지혜 이경철  
 서양숙 김수현 빙찬희 이상현 장희정 강경희 김대익 김종진 박재범 오은경 이재호 조수월 함정호 이로은  
 김희경 김용식 배미령 이사름 전부연 유현복 김덕운 김종태 박정태 오진환 이점순 조수진 허 준 이순길  
 백정숙 김용표 변애란 이서현 정도현 유창연 김동욱 김중광 박종훈 우순점 이정민 조유진 홍상수 이해림  
 신상룡 김은미 변지현 이수경 정은영 강득록 김명숙 김지영 박주경 우영옥 이중인 조은미 황경석 이희자  
 양승웅 김은정 서석민 이순모 조경희 강문헌 김문영 김춘화 박태희 유정재 이지현 조정민 황광철 임재남  
 강미선 김인식 서수정 이영희 조희옥 강보길 김미경 김판신 박현님 유현정 이진영 주문돈 황순옥 장말자  
 강은주 김인영 손상우 이오영 채지영 강복웅 김미옥 김향숙 박형준 윤총현 이해영 주혜숙 권정아 장 미  
 강정숙 김재호 손영희 이유철 최복희 강옥선 김미현 김향희 배준식 이경희 임수신 지명자 김경란 전우성  
 고광숙 김정원 송민선 이운정 최영화 강인숙 김민정 김형규 백강순 이경희 임현식 지현우 김동식 조정미  
 고정순 김창우 송승원 이정순 최원식 강혜인 김민정 김효심 서동찬 이동건 장경선 채귀훈 김보경 지서윤  
 구자걸 김형준 송태화 이정원 추향자 곽성일 김빈아슬 노경미 설은자 이동우 장서우 천승영 문영일 최정희  
 권태역 김혜정 신금년 이정희 하연숙 구미선 김선경 노 란 성경직 이두희 장용창 최경민 문예진 한승희  
 길미숙 류시성 인원봉 이준석 한서연 권두한 김수안 조성민 손동석 이민영 전미애 최고은 문현숙 현재근  
 길현자 류제표 인재성 이자은 한용탁 권수경 김수영 문보빈 손영미 이봉자 전병철 최선미 박병관 황미경  
 김갑우 박선희 양은희 이창희 한정수 권순범 김승환 박경숙 송병순 이상건 전성일 최수화 박은아 황복현  
 김경원 박순화 예진순 이철호 한종업 권순환 김양숙 박경우 송은화 이상필 전영은 최순환 세 웅  
 김기성 박인경 오성일 이태희 한지연 권혜진 김영숙 박미경 송지우 이서영 전지호 최인규 송봉섭  
 김대식 박정임 오정택 이필영 허종보 금두희 김영은 박민주 신미혜 이선민 정경순 최주호 신미경  
 김미정 박종보 유품명 이향애 하지연 길현배 대산항도선사조성민 안순주 이숙형 정금도 최현숙 신민경  
 김봉환 박준경 유나경 이혜경 현은영 김경률 김완진 박성미 안영민 이유진 정래식 최현자 안선영  
 김석곤 박현실 유시훈 이화경 협희련 김국희 김의권 박성수 여인숙 이은경 정문희 추순옥 안인옥  
 김석순 박혜숙 윤명선 임지영 흥진숙 김기홍 김재민 박성원 예병우 이응노 정영숙 한병기 오훈철  
 김선문 박홍주 윤정호 임진영 황유진 김나경 김정길 박순희 예상희 이 인 정현숙 한승희 이경수  
 김선옥 방미경 윤호숙 장수빈 박인숙 김나현 김정칠 박영아 오병찬 이일현 정희숙 MATSUHASHI SACHIYO

## [ 뉴스레터 ]

류제표 이지은 김승환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중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 • 3월 후원입니다.

### [ 일반후원회원 ]

김금숙	김근식	노기선	손대성	이상현	조수진	박주하	강희석	김수훈	김형숙	박진현	신순숙	이갑성	이정임
김수미	김기연	노옥재	손영희	이서현	조연정	이영미	고경옥	김숙녀	김현숙	박진희	신순임	이경선	이중인
노혜숙	김남홍	노주형	손정숙	이순자	조정희	이외순	고관규	김순영	김현우	박철웅	신정원	이경숙	이진미
송영규	김대순	노지희	송필순	이오영	조 협	장영애	고병업	김승환	김현지	박태정	신현희	이근진	이철호
정경희	김 만	드림앤	신미란	이유철	조희옥	김동환	고연화	김양지	김형숙	박태희	신혜정	이금림	이판오
석호길	김미경	안병자점	신숙경	이은경	주동규	문귀숙	고지안	김영은	김형희	박현님	안봉진	이기남	이현주
정희용	김민정	류석현	신주호	이은민	주선우	오문택	곽도순	김용철	김화숙	박현숙	안선영	이길엽	이혜원
한태장	김봉환	류시성	신창연	이재숙	지민규	정기찬	권미향	김원달	김희준	박형준	안성환	이동우	이화승
박승호	김석범	류제표	심연우	이정민	지상금	강성연	권이슬	김원진	노경미	박홍남	안순희	이두희	임미순
박현호	김석순	류지현	심지현	이정순	진광자	박수미	권재영	김원태	노 란	박희복	안재호	이두희	임수신
법률스님	김선문	문은영	심홍아	이지은	최동호	박순천	권태윤	김유연	노은하	배명자	안정애	이명숙	임 철
오민정	김선정	박경석	안도연	이침한	최복희	손은숙	권호기	김은경	문보빈	배준식	안정희	이명순	장경선
오환석	김성진	박금옥	안상호	이창희	최옹선	신강희	금두희	김은수	문지영	백강순	양경희	이미나	장세만
이지현	김승희	박민경	안재성	이혜경	최원석	고은별	기세환	김은희	문태운	백단심	양혜영	이미란	장정화
최선희	김영실	박병진	오성일	이화경	최정연	권윤정	김경실	김의권	민영희	백영일	양하준	이봉자	장창호
강용순	김영주	박봉진	오재민	임윤석	하연숙	김미숙	김경필	김인희	민춘희	백용대	여경민	이상건	전구재
강호일	김월금	박상미	오정숙	임진영	하지유	이경화	김경희	김재규	박경숙	서영란	여경화	이상만	전미애
고광숙	김은완	박상호	오정택	임해진	한상훈	박정옥	김귀남	김재민	박경훈	서영홍	여현주	이상열	전병찬
고마숙	김은자	박수일	오지인	임희진	한영옥	소희주	김나경	김재훈	박경희	서주연	오명숙	이상필	정구락
고정순	김인식	박애란	용채명	장경원	한용탁	오덕진	김대철	김정옥	박근영	서창무	오미옥	이선경	정다영
고지선	김재영	박인경	우서정	장도연	한지연	이복승	김리원	김정옥	박민식	석선정	오병찬	이선민	정란희
곽봉준	김재호	박준경	유수스님	장성심	한혜옥	이영미	김명희	김정윤	박민정	성향아	오세준	이선호	정래식
구미경	김정숙	박혜숙	유우인	장영주	허지연	이원석	김문영	김종복	박분숙	손경연	오세철	이성미	정명화
구언언	김정임	박홍주	유재성	전미선	현효용	이효산	김민정	김종희	박선희	손영미	오진미	이소현	정보성
구자걸	김종순	방서연	윤여훈	정경숙	홍지예	임순옥	김민정	김주옥	박성원	손영상	오진환	이연순	정선경
권효순	김진민	배미령	윤영실	정근혜	홍진숙	이덕기	김민중	김지영	박성준	손재선	우복덕	이연순	정선영
기모란	김학련	배상훈	윤옥순	정미숙	황희숙	김세일	김백수	김지은	박순옥	송기형	유은희	이 영	정성아
길미숙	김 혁	박혜은	윤혜숙	정인숙	정상목	강득록	김상원	김진권	박선희	송민령	유정재	이영숙	정수희
길현자	김형국	서석민	이경향	정용구	노진서	강보길	김선경	김찬우	박승우	송민석	윤석황	이영애	정순자
김경란	김형익	석은영	이경희	정점순	정하린	강유진	김선희	김창수	박영주	송승원	윤은희	이영휘	정순진
김경분	김홍희	설민영	이길자	정현태	채영운	강자성	김성유	김태완	박재현	송지우	윤인숙	이은경	정안수
김경희	김희경	성광지	이덕아	정혜윤	윤남희	강태경	김세호	김히정	박정수	송태화	윤태욱	이응노	정영미
김규혁	남연우	손규만	이명희	조경희	김승희	강현기	김수녀	김 향	박주영	신명순	윤후영	이 인	정영수

정정관	조혜정	최경민	최장희	한미경	허은희	김종호	권정아	김창진	심진희	유운식	이은설	정승연
정정영	지명자	최고은	최정희	한병기	허 준	박동주	김경애	김화영	양기환	윤상석	이재문	정월향
정정희	지은아	최광수	최지원	한승희	현정련	배선희	김경주	문예진	양연수	윤재승	이정희	정정원
정현숙	지은정	최기진	최진연	한의규	호수경	신봉월	김도영	박윤호	오미현	윤태순	이청수	최다무한
조세분	지현숙	최대식	최현서	한태숙	홍미경	정언모	김미영	박은아	우현자	이로은	이희자	최병숙
조시현	차영석	최민서	최현숙	함정호	황은단	정유진	김미자	서예랑	우효준	이상광	임도영	한대식
박해광	채수연	최상민	하기완	허미혜	황인조	강미정	김성혜	설정경	원춘경	이승용	장미애	한동필
조영구	채희주	최수지	하선아	허영숙	김병주	강희선	김창민	송봉섭	유미환	이시훈	장효숙	한송희
조혜숙	천성필	최영자	한규매	허윤숙	강신준	건축사사무소석원	송전용	유옥경	이원재	전우성	조금연	

## [ 좋은이웃되기 ]

조은서	김지훈	오성일	임지영	하재남	김도연	김현정	박인환	유두진	이 은	전정숙	한건우	김한영	장시은
강미선	김필선	오정택	임진영	한지연	김동윤	김현주	박재범	유정재	이은경	전혜준	한병기	문성해	전우성
고정순	김현지	용체명	임희경	허종보	김명수	김혜영	박정숙	윤득기	이 인	정금도	한상윤	문예진	정원자
구영모	김혜정	위라미	장수빈	허지연	김명신	노경미	박태희	윤여동	이인숙	정래식	한승희	박세미	조순봉
구자걸	김희경	이다혜	장희정	현은영	김문영	노 란	박현님	윤정호	이일현	정문화	한운호	박은아	최동숙
길현자	노주형	이미경	전혜진	황경식	김민정	노희산	박준현	윤충현	이재관	정성호	한정현	서성희	최성희
김가빈	노혜원	이병숙	정성희	limehua	김민정	류민경	배정기	은상봉	이점순	정순자	함정호	송봉섭	한송희
김경선	류시성	이상한	정은영	전보영	김선경	문경자	백강순	이경선	이종승	정현숙	허윤숙	송선희	한정수
김경원	류제표	이서현	정지안	권교중	김성열	문보빈	백동화	이남운	이중인	조남국	홍경희	신보영	황승오
김민경	박선희	이외숙	정지윤	구영희	김순정	문정희	설은자	이동규	이지현	조세분	홍순연	안선영	황연주
김민범	박순화	이유철	조경희	강득록	김승호	민춘희	손영미	이동우	이철호	조주호	홍옥희	양홍심	황지영
김봉화	박준경	이윤정	조재의	김문현	김승환	박경숙	손의련	이민영	이미화	주혜숙	홍효정	엄지선	
김분주	박현실	이정민	조희옥	강보길	김완진	박명복	송승원	이명우	임경란	지명자	황수진	이로은	
김석순	박혜숙	이정순	천인근	강희배	김의경	박선경	송지우	이민영	임수신	최경민	고성임	이미애	
김선문	박흥주	이정원	최경임	곽도순	김의권	법성스님	송태화	이봉자	임은숙	최금자	고현정	이은우	
김선정	방미영	이정은	최복희	권지웅	김재민	박성원	신정원	이상현	임현식	최선미	구현오	이정남	
김수진	방서연	이지은	최순희	금동숙	김정실	박수영	안소연	이서영	장경선	최양님	권정아	이정남	
김수현	배미령	이창희	최영화	금우희	김춘희	박순우	양미진	이선민	장서우	최은숙	김경주	이종필	
김영숙	변종임	이필영	최원식	길현배	김태완	박순희	양지연	이성애	장자만	최인미	김규희	이희자	
김영자	서양숙	이현미	최현이	김경현	김태희	박영덕	오병찬	이수민	전미애	최한구	김나형	장계환	
김윤범	성혜정	이혜경	추향자	김국환	김한수	박영아	오윤주	이 영	전외자	최현미	김태욱	장달자	
김인식	손영희	이희경	하연숙	김남선	김향숙	박운정	유남욱	이원우	전은수	최현숙	MATSUHASHI SACHIYO		

## [ 평화지킴이 ]

김희경	강미선	강정숙	고정순	권태억	길현자	김경원	김대식	김봉환	김석순	김선옥	김수현	김용표	김은정
양승용	강은주	고광숙	구자걸	길미숙	김갑우	김기성	김미정	김석곤	김선문	김선정	김용석	김은미	김인식

김인영 벤지현 이서현 전부연 이정숙 김기홍 김자민 박성미 송승원 이동건 이해영 조은미 홍상수 이경철  
 김재호 서석민 이수경 정은영 박인숙 김나경 김정길 박성수 송은화 이동우 임수신 조정민 흥광철 이로은  
 김정원 서수정 이순모 조경희 강경희 김남심 김정칠 박성원 송지우 이두희 임현식 주문둔 황순우 이순길  
 김창우 석지원 이영희 조희옥 유창연 김대익 김종애 박순희 송태화 이민영 장경선 주혜숙 황미경 이혜림  
 김형준 손상우 이오영 채지영 유현복 김덕운 김종진 박영아 신미혜 이봉자 장서우 지명자 권정아 이희자  
 김혜정 손영희 이유철 최복희 강득록 김동욱 김종태 박윤정 신정원 이상건 장용창 지현우 김경란 임채남  
 노현승 송민선 이윤정 최영화 강문현 김명숙 김종광 박재범 인순주 이상필 전미애 채귀훈 김동식 장말자  
 류시성 신금년 이정민 최원석 강보길 김문영 김지영 박정태 안영민 이서영 전병철 천승영 김보경 장 미  
 류제표 신상룡 이정숙 추향자 강복웅 김미경 김춘화 박중훈 여인숙 이선민 전성일 최경민 문영일 전우성  
 박선희 안원봉 이정순 하연숙 강옥선 김미옥 김판신 박주경 예병우 이숙형 전영은 최고은 문예진 조정미  
 박순화 안재성 이정원 한서연 강인숙 김미현 김향숙 박태정 예상희 이유진 전지호 최선미 문현숙 지서윤  
 박인경 오성일 이정희 한용탁 강혜인 김민정 김향희 박태희 예천순 이은경 정경순 최수화 박병관 최순환  
 박정임 오정택 이준석 한정수 곽성일 김민정 김형규 박현님 오병찬 이응노 정금도 최인규 박은아 최정희  
 박종보 용채명 이지은 한종업 구미선 김반아슬 김효심 박형준 오윤주 이 인 정도현 최주호 세 응 한송희  
 박준경 유나경 이창희 한지연 권두한 김선경 노경미 배준식 오은경 이일현 정래식 최현숙 송봉섭 현재근  
 박현실 유시훈 이태희 허종보 권수경 김수안 노 란 백강순 오진환 이재관 정문희 최현자 송선희 황복현  
 박혜숙 윤명선 이필영 허지연 권순범 김수영 대산항도선사조성민 우순점 이재호 정영숙 추순옥 신미경  
 박흥주 윤정호 이해경 현은영 권순환 김승환 문보빈 서동찬 우영옥 이점순 정현숙 한병기 신민경  
 방미경 윤호숙 이화경 헌희련 권혜진 김양숙 민춘희 설은자 유정재 이정민 정희숙 한승희 안선영  
 방미영 이경희 임지영 홍진숙 금득희 김영숙 박경숙 성경직 유현정 이중인 조세분 한지혜 안인옥  
 방진희 이미경 임진영 황경석 길현배 김영은 박경옥 손동석 윤충현 이지현 조수월 함정호 오훈철  
 배미령 이상현 장수빈 황유진 김경률 김완진 박미경 손영미 이경희 이진영 조수진 허 준 이경수  
 변애란 이새롬 장희정 정태임 김국희 김의권 박민주 송병순 이경희 이철호 조유진 MATSUHASHI SACHIYO

## [ 뉴스레터 ]

류제표 이지은 김승환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중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 • 4월 후원입니다.

## [ 일반후원회원 ]

김금숙 오민정 박현호 고광숙 곽봉준 기모란 김경희 김대순 김봉환 김성진 김은란 김종순 김형익 노옥재  
 송영규 오환석 이해림 고미숙 구미경 길미숙 김규혁 김 만 김석범 김승희 김인식 김진민 김홍희 노주형  
 정경희 이지현 정토법당청년지부 구언연 길현자 김근식 김미경 김석순 김영실 김재영 김학련 김희경 노지희  
 박승호 최선희 강용순 고정순 구자길 김경란 김기연 김민정 김선문 김영주 김재호 김 혁 남연우 드림엔  
 법륜스님 김병주 강호일 고지선 권효순 김경분 김남홍 김민정 김선정 김월금 김정숙 김형국 노기선 안양찌점

류석현	심연우	이창희	최상민	이효산	김민정	김주옥	박영주	신순임	이근진	이혜원	조혜정	허준	송전용
류시성	심지현	이철호	최웅선	임순옥	김민정	김지영	박재현	신정원	이금림	이화승	지명자	현정련	심진희
류제표	심흥아	이향애	최원석	이영미	김민정	김지은	박정수	신현희	이기남	임미순	지은아	호수경	양기환
류지현	안도연	이혜경	최정연	이덕기	김민중	김진권	박주영	신혜정	이길엽	임수신	지은정	홍미경	양연수
문은영	안상호	이희경	하연숙	강득록	김상원	김찬우	박진현	안봉진	이동우	임철	지현숙	황은단	오미현
문정연	안재성	임윤석	하지유	강보길	김선경	김창수	박진희	안선영	이두희	장경선	차영석	황인조	우현자
박경식	오성일	임진영	한상훈	강유진	김선희	김태완	박철웅	안성환	이두희	장세만	채수연	강신준	원춘경
박금옥	오재민	임혜진	한영옥	강재성	김성유	김하정	박현님	안순희	이명숙	장정화	채희주	박동주	유미환
박민경	오정숙	임희진	한용탁	강태경	김세일	김향	박현숙	안재호	이명순	장창호	천성필	김종호	유옥경
박병진	오정택	장경원	한지연	강현기	김세호	김향숙	박현준	안정애	이미나	전귀재	최경민	박태화	윤재송
박봉진	오지인	장도연	한혜옥	강희석	김수녀	김현숙	박흥남	안정희	이미란	전미애	최고은	배선희	이로은
박상미	용채명	장성심	허지연	건축사사무소석원	김현우	박희복	양경희	이봉자	전병찬	최광수	신봉월	이상광	
박상호	우서정	장영주	현효용	고경우	김수훈	김형숙	배명자	양혜영	이상건	정구락	최다루한	정유진	이승용
박수일	유수스님	전미선	홍지예	고관규	김숙녀	김형희	배준식	양희준	이상만	정기찬	최대식	정재필	이시훈
박애란	유우인	정경숙	홍진숙	고병엽	김승환	김화숙	백기순	여경민	이상열	정다영	최민서	정언모	이원제
박인경	유재성	정근혜	황화숙	고연화	김양지	김희준	백단심	여경화	이상필	정란희	최수지	강미정	이은설
박준경	윤여훈	정미숙	박주하	고지안	김영은	노경미	백영일	여현주	이선경	정래식	최영자	강희선	이정희
박혜숙	윤영실	정안숙	문귀숙	곽도순	김용철	노란	백용대	오명욱	이선민	정명화	최정희	권정아	이첨수
박흥주	윤옥순	정용구	오문택	권미향	김원달	노은하	서영란	오미옥	이선호	정미숙	최정희	김경애	임도영
빙서연	윤혜숙	정점순	채영운	권이슬	김원진	문보빈	서영홍	오병찬	이성미	정보성	최지원	김경주	장미애
배미령	이경향	정현태	정하린	권재영	김원태	문지영	서주연	오세준	이소현	정선경	최진연	김도영	장효숙
배상훈	이경희	정혜윤	황수남	권태윤	김유연	문태운	서창무	오세철	이연순	정선영	최현서	김미영	전우성
백혜은	이길자	조경희	고은별	권호기	김은경	민영희	석선정	오진미	이연순	정성아	최현숙	김미자	정영수
서석민	이덕아	조수진	권윤정	금두희	김은수	민춘희	설민영	오진환	이영	정수희	하기원	김백수	정월향
성광지	이명희	조연정	박수미	기세환	김은자	박경숙	설정경	우복덕	이영숙	정순자	하선아	김성혜	조정희
손규만	이상현	조협	박순천	김경실	김은희	박경훈	성향아	유은희	이영애	정순진	한규매	김순영	최병숙
손대성	이서현	조희옥	손은숙	김경필	김의권	박경희	손경연	유정재	이영익	정승연	한미경	김창민	한대식
손영희	이순자	주동규	신강희	김경희	김인희	박근영	손영미	윤상석	이영휘	정안수	한병기	김창진	한동필
손정숙	이오영	주선우	이경화	김귀남	김재규	박민정	손영상	윤석황	이응노	정영미	한승희	김화영	한승희
송승원	이유철	지민규	강성언	김나경	김재민	박분숙	손재선	윤은희	이인	정정관	한의규	문예진	이희자
송태화	이은경	지상금	박정옥	김대철	김재훈	박선희	송기형	윤인숙	이재문	정정영	한태숙	박민식	
송필순	이은민	진광자	소희주	김리원	김정옥	박성원	송민령	윤태욱	이정임	정정희	함정호	박윤호	
신미란	이정민	최기진	오덕진	김명희	김정옥	박성준	송민석	윤후영	이중인	정현숙	허미혜	박은아	
신숙경	이정순	최동호	이복승	김문영	김정윤	박순옥	송지우	이갑성	이진미	조세분	허영숙	박태희	
신주호	이지은	최보이	이와순	김미경	김종복	박순희	신명순	이경선	이판오	조영구	허윤숙	서예랑	
신창연	이참한	최복희	이원석	김미숙	김종희	박승우	신순숙	이경숙	이현주	조해숙	허은희	송봉섭	

## [ 좋은이웃되기 ]

조은서 전보명 강미선 고정순 구영모 구자걸 길현자 김가빈 김경선 김경원 김미경 김민범 김봉환 김분주

김석순	박혜숙	이외숙	전혜진	현은영	김명신	김현정	박인환	윤정호	이인숙	정문희	한승희	문예진	장계환
김선문	박홍주	이유철	정성희	황경식	김문영	김현주	박재범	윤충현	이일현	정성호	한운호	박세미	장말자
김선정	방미영	이윤정	정은영	limeihua	김민정	김혜영	박현님	은상봉	이재관	정순자	한정현	박순우	전우성
김수진	방서연	이정민	정지안	권교중	김민정	노경미	박형준	이경선	이점순	정현숙	함정호	박은아	정원자
김수현	배미령	이정순	정지윤	구영희	김선경	노 란	배정기	이남운	이종승	조남국	허윤숙	박태희	최동숙
김영숙	변종임	이정원	조경희	강득록	김성열	노희산	백강순	이동규	이중인	조세분	홍경희	서성희	최성희
김영자	서양숙	이정은	조재익	강문현	김순정	류민경	백동화	이동우	이지현	조주호	홍순연	손의연	한승희
김인식	서재원	이지은	조희옥	강보길	김승호	문경자	설은자	이만영	인미화	주혜숙	홍옥희	송봉섭	한정수
김지훈	성혜정	이창희	천인근	강희배	김승환	문보빈	손영미	이명우	임경란	지명자	홍효정	신보영	황연주
김필선	손영희	이철호	최경임	고유진	김완진	문정희	송지우	이민영	임수신	최경민	황수진	안선영	
김혜정	송승원	이필영	최복희	곽도순	김운범	민춘희	신정원	이봉자	임은숙	최금자	황지영	양홍심	
김희경	송태화	이향애	최순희	권지웅	김의경	박경숙	안소연	이상현	임현식	최선미	고성임	엄지선	
노주형	오성일	이현미	최영화	금동숙	김의권	박명복	양미진	이서영	장경선	최양님	고현정	이로은	
노혜원	오정택	이혜경	최원석	금두희	김재민	박선경	양지언	이선민	장시은	최은숙	구현호	이미애	
류시성	용채명	이화경	최현이	길현배	김정실	법성스님	오병찬	이성애	장지만	최인미	권정아	이은우	
류제표	위라미	임지영	추향자	김경현	김준희	박성원	오윤주	이수민	전미애	최한구	김경주	이정남	
문정연	이다혜	임진영	하연숙	김국환	김태완	박수영	유남욱	이 영	전외자	최현미	김구희	이정남	
박선희	이미경	임희경	허재남	김남선	김태희	박순희	유두진	이원우	전은수	최현숙	김나형	이종필	
박순화	이방숙	장수빈	한지연	김도연	김한수	박영덕	유정재	이 은	전정숙	한건우	김태욱	이희자	
박준경	이상한	장희정	허종보	김동윤	김한영	박영아	윤득기	이은경	정금도	한병기	문성해	임경희	
박현실	이서현	전혜준	허지연	김명수	김향숙	박윤정	윤여동	이 인	정래식	한상윤	MATSUHASHI SACHIYO		

## [ 평화자킴이 ]

김희경	김미정	김창우	방미경	안재성	이순모	이향애	최원석	유현복	김경률	김반아술	김중광	박민주	백강순
신상룡	김봉환	김형준	방미영	예천순	이영희	이혜경	추향자	강득록	김국희	김선경	김지영	박성미	서동찬
양승용	김석곤	김혜정	방찬희	오성일	이오영	이회경	하연숙	김문현	김기홍	김수안	김춘화	박성수	설은자
강미선	김석순	류시성	배미령	오정택	이유철	임지영	한서연	강보길	김나경	김수영	김판신	박성원	성경직
강은주	김선문	류제표	변애란	용채명	이운정	임진영	한용탁	강복웅	김남심	김승환	김향숙	박순희	손동석
강정숙	김선옥	문정연	변지현	유나경	이정민	장수빈	한정수	강옥선	김대익	김양숙	김향희	박영아	손영미
고광숙	김선정	박경옥	서석민	유시훈	이정숙	장희정	한종업	강인숙	김덕운	김영숙	김형규	박윤정	송병순
고정순	김수현	박선희	서수정	윤명선	이정순	전부연	한지연	강혜인	김동욱	김영은	김효심	박재범	송은화
구자걸	김용석	박순화	석지원	윤정호	이정원	정도현	허종보	곽성일	김명숙	김원진	노경미	박정태	송지우
권태익	김용표	박인경	손상우	윤호숙	이정희	정은영	허지연	권두한	김문영	김의권	노 란	박종훈	신미혜
길미숙	김은미	박정임	손영희	이경희	이준석	정타임	현은영	권수경	김미경	김재민	대사항도선사조성민	신정원	
길현자	김은정	박종보	송민선	이미경	이지은	조경희	현희련	권준범	김미옥	김정길	조성민	박주경	안준주
김갑우	김인식	박준경	송승원	이상현	이창희	조희옥	홍진숙	권순환	김미현	김정칠	문보빈	박현님	안영민
김경원	김인영	박현실	송태화	이새롬	이철호	체지영	황경식	권혜진	김민기	김종애	민춘희	박형준	여인욱
김기성	김재호	박혜숙	신금년	이서현	이태희	최복희	박인숙	금두희	김민정	김종진	박경숙	반일효	예병우
김대식	김정원	박홍주	안원봉	이수경	이필영	최영화	강경희	길현배	김민정	김증태	박미경	배준식	예상희

오병찬 이경희 이서영 이재호 장용창 정문화 주문돈 최수화 함정호 김경란 송봉섭 이순길 최인규  
오윤주 이경희 이선민 이점순 전미애 정영숙 주혜숙 최순환 허 준 김동식 신미경 이해림 최정희  
오은경 이동건 이숙형 이중인 전병철 정현숙 지명자 최주호 홍상수 김보경 신민경 이희자 한송희  
오진환 이동우 이유진 이지현 전성일 정희숙 지현우 최현숙 황광철 문예진 안선영 임채남 현재근  
우순점 이두희 이은경 이진영 전영은 조세분 채귀훈 최현자 황순옥 문현숙 안인옥 장말자  
우영옥 이민영 이응노 이해영 전지호 조수진 천승영 추순옥 유창연 박병관 오훈철 장 미  
유정재 이봉자 이 인 임수신 정경순 조유진 최경민 한병기 황미경 박은아 이경수 전우성  
유현정 이상건 이일현 임현식 정금도 조은미 최고은 한승희 구미선 박태희 이경철 조정미  
윤충현 이상필 이재관 장경선 정래식 조정민 최선미 한지혜 권정아 세 웅 이로은 MATSUHASHI SACHIYO

## [ 뉴스레터 ]

류제표 이지은 김승환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중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 (사) 좋은벗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 필수입력 항목 표시입니다.

<b>*성명</b>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b>주민등록번호</b>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기재해 주세요)		
<b>*주소 우)</b>		소식지 구독 <input type="checkbox"/> 수신함 <input type="checkbox"/> 수신안함
<b>이메일</b>		<b>*전화</b>
<b>*후원금액</b>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일시불 /		원
<b>*후원종류</b>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좋은이웃되기 <input type="checkbox"/> 평화지킴이		
<p>본인은 (사) 좋은벗들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후원금이 (사) 좋은벗들의 일체의 목적사업비나 운영비로 쓰임에 동의합니다.</p>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b>*납부방법</b> <input type="checkbox"/> CMS자동이체 ((사) 좋은벗들에 자동이체 위임)		
<b>*CMS자동이체 동의서</b>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약정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사) 좋은벗들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b>*출금은행</b>		<b>*출금계좌</b>
<b>*예금주</b>		<b>*예금주 서명</b> (후원신청인과 다를 경우)
<b>*예금주 생년월일</b>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b>*예금주 핸드폰번호</b> (후원신청인과 다를 경우)
<b>*출금일</b>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출금일에 잔고부족 등이 이유로 미출금 된 경우, 다음 출금일에 한해 재출금됩니다.)		
위와 같이 후원금 자동이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좋은벗들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 좋은벗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후원회원께서는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회원가입 및 관리, 기부금영수증발급, 후원금 수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동의일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거부권리 및 불이익  
거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동의일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거부권리 및 불이익  
거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제공정보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주)나이스페이 (증)한국소프트웨어 (주)오즈메일러, 국세청	CMS 출금이체 승인 및 정산, 후원금 결제, 회원관리, 온라인서비스,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후원금 결제정보 보관(5년, 후원 중단일로부터)

거부권리 및 불이익  
거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 좋은벗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 동의〉  
본인은 (사) 좋은벗들이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시장출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약정한 금액의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 좋은벗들과 협의하여 출금이행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사) 좋은벗들이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간, 전자금융업자 및 (사) 좋은벗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문의(후원회원 담당자) 전화 02-587-8996, 팩스 02-581-4077, 메일 cr@gf.or.kr

〈좋은벗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벗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세상,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으로,  
돈이 있으신 분은 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께  
마음 속의 사랑을 선물로 드립니다.

